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령 강림 대축일 · 성모성월
제33권 25호(다해) 2013-5-19

[묵상]



성령 강림<지오토 디 본도네, 14c, 런던내셔널갤러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저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불어넣어주시는 숨을 쉬는 것.
그러나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

주님의 숨이
나의 들숨 날숨이 되어
나의 생명이 되는 것.

생명체가 생명체인 이유는
숨을 쉬기 때문이고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하느님의 숨을 쉬기 때문.

주님의 숨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즐겁게 쉬어
참 인간으로 살기 위하여
오소서, 성령님.
머무소서, 성령님.

- 柜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언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렐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종길 바오로, 권순봉 요안나, 이영자 올리아 (생)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이덕철 루카, 이경용 야고보, 김종길 바오로, 송기인 요셉 & 김재순 아가다, 이달자 마리아, 김금점 모니카, 이상일 요셉, 전시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정학순 발바라, 이숙자 루피나 & 홍숙녀 마리아 & 이용완 (생)이윤조 클라라, 정진권 요한, 이명자 토사, 김은희 안나, 남명자 테레사, 토런스 북구역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of Apostles) 2,1-11

화답송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당신숨을 보내시어-여, 온누리의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제 2독서 코린토 1서(Corinthians) 12,3ㄷ-7.12-13

부 속 가 성령송가: 주보 3면 참조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 음 요한(St. John) 20,19-23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15	317	317
봉헌	376	257	265
성체	As We Gather	283	309
파견	찬양하세	317	312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하느님 말씀과 세상에 대한 투신

▶ 예수님의 “가장 작은 형제들” 안에서 그분을 섬김(마태 25,40)
99). 현대에 우리는 자주 지나가는 순간의 가치를 피상적으로
여기고, 마치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 상관 없는 듯이 여
깁니다. 반면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하
며,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결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강렬
하게 살아야 한다고 일깨웁니다. 마태오 복음서 25장에서, 하
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가장 작은 형제들”(마태
25,40.45)에게 하거나 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당신 자신에게
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
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
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
다.”(마태 25,35-36). 하느님의 말씀 바로 그분께서, 우리가
세상에 투신해야 한다는 것과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 우리가 지닌 책임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는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선을 행하고 정의와 화해와 평화를 위
해 투신하도록 서로에게 권고합니다.

▶ 하느님 말씀과 정의를 위한 사회 안의 임무

100).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공정과 정의에 기초한 관계
를 맺도록 감도하고, 인간이 세상을 더 정의롭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울인 모든 수고가 하느님 앞에서 소
중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분
명하게 불의를 고발하고 연대성과 평등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역사 안에 나타나는 “시대의 표
징들”을 알아보고 고통 받는 이들과 이기심에 희생된 이들을
위한 투신을 회피하지 않도록 합시다. 세계주교 대의원 회의
는 정의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투신하
는 것이 복음화의 구성적 요소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바오로 6
세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
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 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 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
들을 변화시키고 바로잡아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은 특히 정치와 사
회생활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인간
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촉진하며 모든 이를 위한 진정한 선을
추구하도록, 복음화와 하느님 말씀의 전파가 세상 안에서 그
들의 활동을 감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성령의 불뚱이라도 떨어졌으면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사회가 그만큼 불통과 불신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대형 개발사업들이 정책입안자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충돌로 사상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 역시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언어를 국어로 사용하면서도 대화는 커녕 전쟁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소통과 화합의 대축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의 날 하늘에서 기센 바람 소리가 나더니,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위엄에 대해 전하는 말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자기 모국어로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작은 불꽃들이 이루어내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령강림을 통해 바벨탑의 사건(창세 11,1-9)과 정반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던 인간들은 결국 서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뿔뿔히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불꽃은 서로 다른 말을 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하느님의 위엄을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1코린 12,13)라고 말하듯이 이제 성령 안에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또한 평화의 대축일입니다. 요복음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수 부활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요한 20,19)고 합니다. 폐쇄적이고 과거 지향적이며 미래를 두려워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안으로 들어오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두 번이나 인사하신 다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흠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창세 2,7 참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문을 열고 나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엄과 평화를 전하는 일꾼으로 거듭납니다.

불통과 불신, 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 답답하고 불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소통과 화합, 그리고 평화의성령께서 내려오심이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려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불통과 불신, 그리고 반평화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성령의 불뚱이라도 절실한 오늘입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성령송가 : 부 속 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돌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빛나간 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신덕례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정광미 프란치스카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일시: 오늘 주일(19일) 오전 11시~오후 5시, 잔디밭
- 대상: 구역별 전 신자(올해부터 청백 구역변경이 있음)
- 청팀: 토런스 동, 서, 남 구역
- 백팀: 토런스 북, 하버/카슨, PV 구역
- 상품: 우승팀-가족당 스포츠가방, 준우승팀-가족당쌀1포
- 경품: 김치냉장고(1등), TV(2등), 뉴아이패드, 전기밥솥, 식사권/가방 등(3등)
- 경품추첨대상: 추첨진행중 참석자로제한, 추첨권 당일배
- 문의: 김용 스테파노 문화체육분과장 ☎(310)926-2248

- 일정 : 6월 6일(목)~9일(주일)
- 강사 : 김세을 요셉 신부

- 일시 : 5월26일(주일) 낮미사후 2층 유아실
- 문의 : 요셉회총무 김병태 요셉 ☎(310)999-1448

- 5월19일(본당체육대회) : 구역별 점심나누기
* 주일학교 : 수업없음
- 5월26일(주일) :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친교자리 없습니다.
* 주일학교 수업없음

교무금 권태만 김원호 신순철 이일길 정혜영 황인종 금영도 김찬구 안태갑 이재철 조경환 한길선례 김병학 김호순 오수인 이현주 지경수 김상규 김효진 이경수 임분필 최미열 김양금 노혜숙 이영석 정규숙 최현찬 김우용 박영희 이은록 정병훈 하양숙 합계 : \$2,830	성전헌금 권태만 김찬구 오수인 지경수 한길선례 금영도 김호순 이경수 최미열 김병학 김효진 이은록 최현찬 김양금 노혜숙 이현주 하양숙 김우용 신순철 정규숙 황인종 김원호 안태갑 정혜영 합계 : \$1,530
주일미사 헌금: \$2,914	주보광고 후원 : \$250 한남체인 도네이션 : \$260

공지사항

◆ 고등부 견진성사 받은 학생들(11명) 축하합니다.

- 성 마가렛매리 본당에서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주례로 18일 오전 10시 고등부 견진성사가 배풀어졌습니다. 백삼위 주일 학교 10학년 학생 11명도 이날 예식에서 견진성사를 받고 굳건한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미사후 우리 본당에 와서 학부모님들이 마련한 점심식사를 겸한 축하식을 가졌습니다.(명단 다음주 발표)

◆ 첫영성체 리허설, 고해성사, 예식

- 리허설 및 고해성사 : 6월1일(토) 오후 3시~5시
- 예식 : 6월2일(주일) 낮 11시 미사중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교무주임 ☎(310)780-8895

◆ 주일학교 은총시장 도네이션 '절실합니다.'

- 은총시장 : 6월16일(주일)대 * 대상 : 유치원부터 6학년
- 상품이나 물적 도네이션을 받고 있으니 교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인석 주일학교장 ☎(213)258-8665

◆ 2013-2014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내년부터 주일학교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는 관계로 등록을 서둘러 주세요.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6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8일부터 등록비 인상(\$140, \$120, \$10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8일(금)~30일(주일), 테미콜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 참가비 : \$50(5월26일 마감, 6월2일부터 \$70, no refund)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코디 ☎(310)709-3343

남가주 소식

◆ 제26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시 : 5월30일(목)~6월2일(주일) 3박4일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배기현 콘스탄틴 신부(남가주성령봉사회지도)
- 참가비 : \$150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및 봉사회총무 ☎(213)435-7570

◆ FIAT 2013 리더십 트레이닝 피정

- 일시 : 6월20일(목)~23일(주일) 3박4일
- 장소 : 성토마스한인천주교회(애나하임)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18세이상 교회봉사자(Young Adult)
- 신청 : 6월2일(주일) 마감
- 문의 : fiat@fiat.org ☎(714)702-9830

소공동체 5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겐마 818-640-3656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박래경 헬리카 617-3568 5/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 체육대회	
---------	--

다음주 단체모임

5월 사목회	오후 1시
--------	-------

행복하고 싶으시죠?

“Are you happy now?”(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며칠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 뭇 잘못 눌렀는지 갑자기 이런 영어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똥똥하기 때문이며,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누구든 5킬로그램 이상 감량하게 해서 행복을 되찾아줍니다.’였습니다.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똥똥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니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건 얼마 전에 본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TV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40% 이상은 돈이 행복의 제일 조건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수입이 월 4백만 원 정도가 될 때까지는 행복지수가 높아지지만,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낮아진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희생해야 할 가족,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돈이 계속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혼도 처음 2년간은 행복지수가 급상승하지만, 시간이 가면 행복감에 익숙해지면서 전과 같아진답니다.

한 마디로 ‘행복에는 유효기간이 있다.’입니다. 아, 정녕 세상에 영원한 행복은 없는 걸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남에게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행복하기 원한다면 말입니다. 매일 느끼는 작은 기쁨이 모이고 쌓여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말입니다.

“Are you happy now?” 이 물음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Yes!”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똥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만의 ‘소소한 행복의 조건’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밀크커피입니다. 뜨겁게 데운 우유 한 컵에 가루커피 2스푼을 넣어 마시면 단번에 온몸이 따뜻해지고 잠이 번쩍 깨면서 활동모드로 전환됩니다. 달콤한 밀크커피로 아침을 여는 습관은 20대에 산에 다니면서 생겼으니 벌써 30년도 넘었네요. 야영하느라 출게 자고 난 새벽, 가루우유 듬뿍 넣은 뜨거운 밀크커피 한 잔은 퐁퐁 언 몸을 녹여주는 구세주이자 천사였습니다.

둘째는 저녁에 일기 쓰면서 마시는 와인 한 잔입니다. 와인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의사의 권고로 시작했는데, 취침 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한 잔 마시면 몸과 마음의 긴장이 확 풀리면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있다는 충만함이 물려옵니다.

세 번째는 시 읽기입니다. 저는 말이 빠르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여고시절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시를 큰소리로 또박또박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외워진 시도 많아지고 그 덕에 제 글속에 아름다운 시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TV 프로그램은 ‘행복이란 매일의 작은 행복, 즉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저는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밀크커피 한잔, 와인 한잔, 그리고 시 한 편이라는 ‘작은 새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도 손을 한 번 펴 보세요. 어쩌면 그 손안에 이미 작은 새 몇 마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한미야 비아 / UN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

☞ 창세기에 보면,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은 하느님의 명이자 축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신부님들이 독신으로 살면서 아이도 낳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명과 축복을 그리고 본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독신생활을 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줄곧 있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4세기에 들어와 교회법으로 주교에게는 독신제가 의무화되었지만, 사제에게 여전히 선택사항이었고(AD 325년, 니체아 공의회), 이전통은 오늘날 동방 교회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교회에서는 기혼 사제들과 그 가족들에 관련된 재산 상속 문제와 일반신자의 미혼자 성직자 선호 등이 고려되어 12세기 제1, 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사제에게도 독신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처음으로 나왔고, 16세기 트랜트 공의회에서 사제 의무 독신제가 확정되었습니다.

독신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 생활뿐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 생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 19,10~12). 사도 바오로는 일찍이 기혼자는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하며 세상일에 먼저 마음을 쓰지만, 하늘나라를 위해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을 주님만을 섬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1코린 7, 32~35).

독신제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풍요는 결국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피조물로부터 그 풍요의 원천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세상사람들에게 독신 생활을 통해 세상의 풍요를 포기함으로써 생명 샘의 원천이신 하느님만을 선택하는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도움말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남산성당 부주임

그 어떠한 것도, 어느 누구도 결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배아이든, 태아이든, 유아이든, 성인이든, 노인이든,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57항>